

민주 정세균號 2기 체제 출범 임박

386 진출·친노 꺼안기 주목

정책위장 이용섭·대변인 김상희 의원 물망

민주당 정세균호 2기 체제 출범을 위한 주요당직 개편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 대표가 주말 지도부 내 의견 수렴과 후보자 접촉을 통해 인선 구상을 매듭짓고 이르면 이번주 초 주요당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일 현재까지 분위기는 1기 체제의 '색깔'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계기로 당이 원외투쟁 체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전면 개편은 불가하다는 것이 현 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주요 당직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지 1주일 만에 인선을 완료하겠다는 점도 대대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정 대표는 원래 사람을 쉽게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특히 투쟁국면에서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조직 외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격무에 시달린 분들이 개인적으로 사

의를 밝힌 데 따른 보완적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도 당직개편 시기와 방향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끝낼 것"이라며 "일단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대폭 바꾸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당내에선 오래 전 사의를 표명한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박순숙 홍보미디어위원장, 김유정 대변인이 교체되고, 이미경 사무총장과 노영민 대변인, 강기정 비서실장,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은 재신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인 새 정책위의장 후보로는 국제청장과 건교부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의원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 카드는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무력화시킬 최상의 선택으로 이가되고 있지만 초선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때문에 정무직 감각과 정책 기획력을 겸비한 전병헌 의원을 비롯,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하고 충청

권의 대표성을 지닌 변재일 의원 등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후임 대변인으로는 초선 비례대표로 입법 대처 과정에서 강경 기조를 선도한 김상희 최영희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재창당 수준의 당 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원외 인사로 요직에 기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직자는 "원외의 훌륭한 자산을 당에 모두 투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원외에는 지난 총선 때 수도권에서 대거 낙선한 386 인사들이 많다. 또 정 대표가 민주개혁세력과의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서 친노 그룹 꺼안기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당 비주류 측에서는 정 대표 2기 체제가 커다란 변화가 없다면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힘들어진다며 혁신적 인사를 요구하고 있어 인사 후 당내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코라손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의 유해가 수도 마닐라의 한 카톨릭계 학교 체육관에 안치된 가운데 2일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민주화 상징 아키노 전 대통령 타계

미·중 등 세계 각국 추모 물결

결정함으로써 투병생활을 하다 1일 타계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필리핀인들의 발길이 일요일인 2일에도 이어졌다.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수도 마닐라의 빈소에는 수천명의 추모객들이 줄서서 조문을 했으며, 일부 추모객은 독재자 페르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에 맞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인 당시 상징물이던 노란색 장미와 국화를 관위에 놓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코라손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역사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타계를 애도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일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을 담은 조문을 보냈다고 중

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아키노 전 대통령의 타계 소식을 전해 듣고, 그의 죽음을 "국가 보물"의 손실이라고 애도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또 10일간의 공식 애도 기간을 갖도록 지시했다.

1933년 부유한 정치가문에서 태어난 아키노는 전도유망한 정치인이었던 베니그노 '노노' 아키노와 결혼, 딸 넷과 아들 하나를 뒀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는 1983년 야당 지도자였던 남편이 암살당하자 정치에 뛰어들어 1986년 고 페르난도 마르코스 독재정부를 무너뜨린 평화적 봉기를 이끈 뒤 집권, 비폭력 시위의 세계적인 선구자가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5월단체 용단 내릴 순 없는가



윤영기 정치부 기자

"타 지역에서는 국책사업을 서둘러 달라고 정부를 보채는 데 왜 광주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다는 핀잔을 듣는 것도 이젠 지겹습니다."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사를 만나 1년 여 동안 옛 도청별관 철거 논란에 발목잡혀 차질을 빚고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에 대해 이같이 푸념했다.

지역 사회의 논란으로 문화전당 건립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문화전당 랜드마크 논란은 전당의 건립시기를 2012년으로 2년 늦췄다. 지난해 6월24일 5·18단체의 농성으로 촉발된 별관철거 논란은 이 시기까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문화전당 건립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옛 도청 문제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전당은 원설계 안대로 가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시사했다.

정부가 문화전당 건립시기를 확정했지만, 광주 시민들이 별관의 원형보존을 원하고, 건립시기를 문제삼지 않을 경우 문화전당 건립을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렇듯 10인 대책위와 5월 단체는 5월의 문과 3분의 1 이상 존치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5월 단체들의 도청별관 보존 주장은 당위론에 가깝다. 그러나 전당 설계자인 유규승씨가 최근 TV공청회 등을 통해 누누이 밝힌 전당의 설계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자. 그는 "도청 별관이 보존대상이었다면 문화전당을 지금처럼 설계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 광주항쟁 유적과 정신을 오롯이 살리기 위해 도청 본관, 상무관, 경찰청 본관 등 주요건물을 지상에 두고 문화전당 건물을 지표 아래에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5월 유적, 정신과 무관하게 지상에 대형 건축물을 세우고 싶은 건축가적 야심을 버리고 선택한 이 설계안 때문에 '문화전당이 광주의 기념비적인 건물이 될 수 없다'는, 이른 바 랜드마크 논란에 맞서야 했다.

이 설계안이 지역 여론의 맛을 맞아 우세를 적극 지지·업호하고 나선 단체는 다른 한편 현재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5월 단체였다. 지금 5월 단체는 그 설계안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안의 변경은 광주의 미래 좌표가 될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차질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부의 최종 선택이 남아 있지만, 중요한 것은 5월 단체의 용단이다. 물리적인 5월 공간의 보존에서 벗어나 5월의 정신이 시민들의 뇌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광주의 미래를 위한 희생과 대동의 정신을 요구한다면 무리일까.

윤영기 기자 yunfoot@kwangju.co.kr

마이클 잭슨 부검 결과 발표 무기 연기

지난 6월 25일 세상을 떠난 마이클 잭슨의 최종 부검결과 발표가 무기 연기돼 그의 사인을 둘러싼 의혹은 당분간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시소는 30일 애초 내주에 있을 예정이었

던 잭슨의 부검결과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에드 윈터 검시관은 잭슨의 사망원인에 대한 발표가 언제 이뤄질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LA 카운티 검찰청과 LA 경찰청,

LA 카운티 검시소가 잭슨 사망사건 수사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서 이러한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LA타임스가 지난달 31일 전했다.

신문은 특히 수사당국이 잭슨이 숨지기 전 몇 달 간 그를 진료했던 주치와와 다른 의료진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李대통령·DJ, 아키노 전 대통령 유족에 조문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코라손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조문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이회호

여사도 지난 1일 타계한 코라손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의 유족에게 조문을 보냈다고 최경환 비서관이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력있는 학생은 합격자로 말한다. = 10명중 7명이 김영출신 합격자 =

2009년 편입 김영출신 합격자 일반편입 현재까지 5,849명 수확전원 현재까지 1,450명

편입! 그것은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대학편입은 역시 "김영" - www.kimyoung.co.kr

자신의 실력을 희망대학에 딱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0년 대학편입 성공

광주분원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2010년 편입대비 편입영어강좌

= 이론과정 (15:00~18:00) = 편입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념정리

= 심화과정 (09:00~12:00) = 실전에 가까운 심화된 단계의 문제풀이 과정

개강 8월 3일 (목) 10:00~12:00

Canon 호남총판 OPEN 기념 특가판매

사진으로 소유할 것인가? 영상으로 소유할 것인가?

Full HD EOS 500D DSLR

Full HD 고화질 동영상 촬영

- ▶ 1510만 화소 CMOS 센서
- ▶ DigiC4 이미지 프로세서
- ▶ ISO 3200 고감도 촬영 지원(확장까지 12800 지원)
- ▶ 3인치 92만도트 대형 클리어뷰 LCD(3중 구조 반사방지 기능)
- ▶ 편리한 촬영을 위한 라이브러리 기능(열광 자동 인식)
- ▶ 크리에이티브 전자동 촬영 모드 및 쿼 설정 지원
- ▶ 렌즈 주변 조도 보정 기능
- ▶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

구입문의 062)350-8397 (주)HD코리아 광주시 서구 금호빌딩 1층 정문입구

대보빌딩 임대

★ 광주 최고 상권의 中心 ★ [동부경찰서~전남여고 후문 사이]

- 최고시설의 신축 건물(지상 6층, 지하 1층)
- 성인 학원(외국어/공무원/일반학원) 밀집지역
- 최상의 상업 지역(아시아문화전당 입구)
- 지하철 역세권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역)]
- 편리한 주차 공간 (20대 동시 주차 가능)
- 최신 개별냉난방 및 내부인테리어 시설 완비

임대면적 : 총별 167평 (분할임대 가능)

용도

- 1층 : 패스트푸드, 일반 매장, 당구장 (* 1층 일부 편의점, 학원상당실 입주 완료)
- 3층, 4층 : 학원, 독서실, 일반 사무실 (* 학원, 정독서실 시설 완비)
- 2층/5층/6층, 입주 완료(학원, 독서실)

임대문의 062)234-1112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침구학 아카데미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 11기) 8월 7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선회관 뒷편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주1회 매주 금요일 14시~17시,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침구학 전문과정

- 자격 : 기본과정 수료생 · 기간 : 주1회 1년 과정
- 주요과목 : 중의침구학/장상론/특수침법/중의방약학/중의임상학/경혈학/중의기초학 등
- 중국 국가자격증 취득가능

활법·운동처방

- 자격 : 관심있는 분 · 기간 : 매주 금요일 2시간(3개월)
- 주요과목 : 재활운동처방/활법/장체요법/근육조정술 등
- 활법사, 운동처방사, 척추교정사 등 민간자격증 발급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다이아몬드링

제주 마그마원석 (관광상품지정예정)

남성들이여, 당당해져라!

4층 특허 6종 실용신안 시험성적서

본 제품은 마그마원석을 3000℃ 이상으로 가공하여 원석의 질을 92.5% 향상하며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현대남성들의 최대의 고민, 37.7℃ 열!”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5단계 조절 마그마

1. 외소하다. 2. 빠르다. 3. 힘이 없다.

“현대남성들은 생육광선, 열선, 생명의 빛이라 알려진 원적외선의 흡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단지 몸에 지나고만 있어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신비의 결정체, 마그마!” (사은품증정)

사이테크 02-2677-0231~2 010-3518-8995

농협 023-02-469931(경의점)/취급점모집 www.hotnakyung.co.kr